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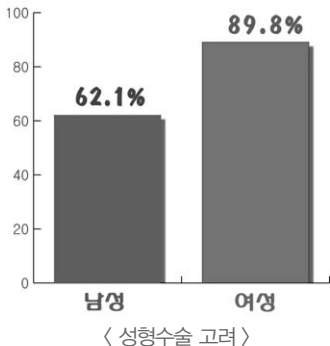
성형수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TV에 나오는 멋진 연예인을 보고 동경해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쳐진 그들의 모습은 꿈속에서나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의 모습이다. 멋진 사람을 닮고 싶은 욕망은 아마도 외모가 비슷해진다면, 또는 나도 저런 멋진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미 일반화된 성형수술, 여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는 남자들도 성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보다 나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직장인 1,1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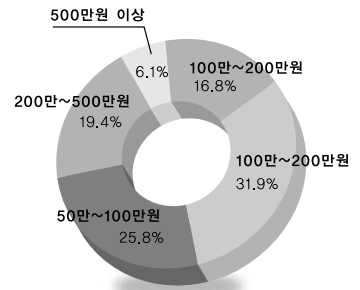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최근 직장인 1,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6%가 성형수술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89.8%가 성형수술을 고려해 봤다고 응답했고, 남성의 경우도 절반이 넘는 62.1%를 기록, 성별과 상관없이 성형수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실제 성형수술의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남성의 경우 6.3%, 여성은 27.4%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68.8%)보다 미혼(81.1%)이 성형수술을 좀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 '자기만족을 위해' (34.1%)라고 대답한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29.5%), '직업(연예인, 모델, 영업직 등)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 (19.2%)을 들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이유로 꼽았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곳은 남성의 경우 △치아교정(20.4%) △코(19.7%) △눈(16.0%) 순으로

선택했으며, 여성은 △코(22.5%) △눈(21.9%) △치아교정(14.2%) 등의 순으로 꼽았다. 성공을 원하는 직장인들은 보다 나은 외모를 위해선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경향도 나타났다. 성형수술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100만~200만원' (31.9%)을 선택했으며, '50만~100만원' 25.8%, '200만~500만원' 19.4%로 각각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을 쓸 수 있다는 응답도 6.1%를 차지했다. 한편, 성형수술을 통해 가장 닮고 싶은 연예인으로는 남성의 경우 '장동건' (29.3%), '다니엘 헤니' (10.9%), '조인성(9.4%) 등을 꼽았고, 여성은 '한가인' (22.6%), '김태희' (17.3%), '송혜교' (15.4%) 등을 선택했다.



〈성형수술 투자비용〉

출처 : 커리어